제 1 교시

언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1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써 넣으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이 이야기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남보다 앞서 나가려면 쉬지 않고 일해야 한다.
② 남과 함께 일을 하려면 협력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③ 일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
④ 빠른 시간 내에 일을 끝내려면 성실하게 노력해야 한다.
⑤ 한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져야 한다.

2. (물음) 학생이 작성할 보고서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마음으로 듣는 음악
② 작곡에 도움을 주는 상상력
③ 실험으로 증명된 음악의 가치
④ 착각이 만들어낸 천재들의 음악
⑤ 정서를 안정시키는 음악의 효과

3. (물음) 강의의 내용과 일치하지 <u>않는</u> 것은?
① 두루미는 학의 순우리말 이름이다.
② 두루미는 궂은 날씨에 대비하기 위해 깃털을 다듬는다.
③ 두루미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강이나 습지에서 잠을 잔다.
④ 두루미는 다친 척하여 천적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도 한다.
⑤ 두루미는 춤으로 새끼를 가르치거나 스트레스를 풀기도 한다.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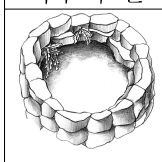
4. (물음) 두 사람의 공통된 생각으로 적절한 것은?
① 소수의 의견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② 다수가 결정한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③ 민주주의 사회는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킨다.
④ 사회적 관습을 기준으로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
⑤ 대화와 합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물음) 여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② 상대가 제시한 사례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③ 적절한 비유를 사용하여 상대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④ 상대에게 유사한 질문을 반복하여 쟁점을 부각하고 있다.
⑤ 상대의 의견을 일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회원가입/로그인 필요 없는 학습자료 제공 무료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6. 다음 대상에 착안하여 '삶의 태도'와 관련한 글을 쓰기 위해 연상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상	착안점	연상한 내용
저수지 물	농업이나 공업 등에 이용하기 위해 저장한 물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①
 우물물	생활용수를 얻기 위해 땅을 파서 생긴 물	결과보다는 과정을, 성공보다는 노력을 중시해야 한다. …… ②
수돗물	용도에 맞도록 여러 단계를 거친 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련과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다. …… ③
폭포수	높은 절벽에서 거침없이 떨어져 내리는 물	위기 상황에서 회피하지 않고 맞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 ④
시냇물	산골짜기, 좁은 평지, 마을 등을 흘러 강이 되는 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의 폭을 넓혀야 한다. …… ⑤

7.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개요를 작성하였다. 수정·보완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Ⅰ. 서론: 기초질서의 개념 …… ㉠
Ⅱ. 원인 분석
  1. 개인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사고 만연 …… ㉡
  2.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이 손해라는 의식 팽배
  3. 기초질서와 관련된 학교 교육의 미흡
  4. 기초질서 위반자에 대한 계도 및 처벌 미흡
Ⅲ. 해결 방안 …… ㉢
  1. 기초질서의 중요성에 대한 개인적 각성 촉구
  2. 위반자에 대한 계도 및 법적 제재 강화 …… ㉣
Ⅳ. 결론: 기초질서 확립의 성과 …… ㉤

① ㉠은 주제를 고려하여 '기초질서의 개념과 위반 실태'로 고친다.
② ㉡은 Ⅱ-2와 연관되므로 '기초질서에 대한 개인의 의식 부족'으로 묶어 함께 서술한다.
③ ㉢에는 글의 완결성을 고려하여 '기초질서의 중요성에 관한 학교 교육 강화'라는 하위항목을 추가한다.
④ ㉣은 글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자발적 참여를 촉구하는 캠페인 전개'로 고친다.
⑤ ㉤은 글 전체의 흐름으로 보아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의 노력 필요'로 고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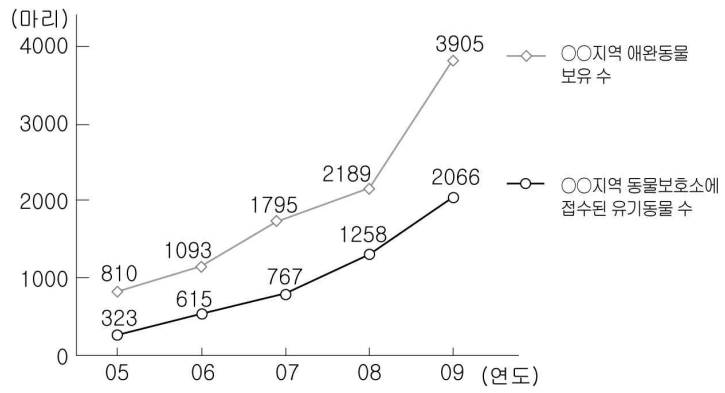
8. <보기>는 '동물 유기 및 학대'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이를 활용하여 이끌어 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신문 보도 내용

최근 ○○시의 주택가에서 아홉 마리나 되는 애완견들이 버려진 채 발견되었다. 이들은 모두 주인에게 심하게 학대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발생한 이와 같은 동물 유기 및 학대는 가족이나 타인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나) 통계 자료



(다) 인터뷰 자료

1. 현행법상 동물 학대의 경우 5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나, 대부분 훈방조치로 끝납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동물을 학대하면 2년 정도의 징역형에 처하며, 사냥과 낚시도 할 수 없게 합니다. - 동물보호협회 관계자 -

2. 우리 시에서는 지역 수의사협회와 함께 '유기견 치료 및 분양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연과 환경, 동물과의 공존'이라는 주제로 동물 보호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 ○○시청 직원 -

① (가)를 활용하여, 애완동물 학대의 심각성을 드러내야겠어.
② (나)를 활용하여, 애완동물 보유수 증가와 함께 유기동물 수도 늘어나는 현실을 문제로 제기해야겠어.
③ (가)와 (나)를 활용하여, 동물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보호소의 역할을 강조해야겠어.
④ (가)와 (다)-1을 활용하여, 동물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해야겠어.
⑤ (나)와 (다)-2를 활용하여, 증가하고 있는 유기동물의 문제를 지역 사회 단체와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음을 제시해야겠어.

회원가입/로그인 필요 없는 학습자료 제공 무료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9. 체험 활동을 하고 난 후 쓴 소감문의 초고이다. 고쳐 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목: 융건릉에 다녀와서

융건릉은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를 합장한 융릉(隆陵)과, 정조와 효의왕후를 합장한 건릉(健陵)을 합쳐 부르는 명칭이다. 두 능이 ㉠가까이 인접해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둘러보기로 했다.

융건릉 입구에 도착해 매표소를 지나 갈림길에 이르는 데 20분쯤 걸렸다. 갈림길의 오른쪽은 융릉으로, 왼쪽은 건릉으로 이어져 있었다. 먼저 오른쪽 길로 10분쯤 걸어 융릉에 ㉡다달았다. 능 앞으로 펼쳐진 푸른 잔디밭과 능 주변으로 빽빽하게 늘어선 적송들이 멋있었다. ㉢나는 오래 걸으면 쉽게 피곤해진다.

그 곳에서 만난 유적 해설사는 생전에 정조가 화성을 자주 찾아 아버지의 묘역을 가꾸는 일에 정성을 다했을 뿐 아니라 용주사를 중건하여 아버지의 극락왕생을 ㉣빌었던 것 같다. 죽어서조차 아버지 곁에 묻히고자 했던 정조의 ㉤지대한 효심에 나는 감동했다.

① ㉠은 의미가 중복되므로 '인접해'를 삭제한다.
② ㉡은 맞춤법에 어긋나므로 '다다랐다'로 바꾼다.
③ ㉢은 글의 흐름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한다.
④ ㉣은 주어와의 호응을 고려하여 '빌었다'로 고친다.
⑤ ㉤은 어휘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지극한'으로 고친다.

10. 학급게시판에 '이 달의 표어'를 게시하려고 한다. <보기>의 조건에 따라 작성한 문구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의도: 학급활동에 다 같이 참여하도록 유도함
표현: 대조와 비유를 활용함

① 사랑으로 심는 봉사의 씨앗
화목한 교실 안에 피어나는 웃음꽃
② 나부터 시작하는 쓰레기 분리수거
우리에게 돌아오는 쾌적한 면학 분위기
③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하듯
학급 회의의 주인도 우리 모두가 되어야
④ '나 하나쯤이야'가 만드는 사막 같은 교실
'우리 모두가'가 만드는 꽃밭 같은 교실
⑤ '우리 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할까' 생각하기 전에
'내가 우리 반을 위해 무엇을 할까' 생각하자!

11. <보기1>을 참조하여 <보기2>의 빈칸을 채울 때, [A]~[C]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배열한 것은?

<보기1>

단어는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뜻을 가진다. 그래서 반의어도 여럿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다'의 반의어는 "고장이 나서 시계가 서 버렸다."에서는 '가다'이지만, "한참 동안 서 있어서 다리가 아프다."에서는 '앉다'가 된다.

<보기2>

단어	예문		반의어
얻다	졸업한 선배한테서 교복을 얻어 왔다.	↔	주다
	어제 서울에 가서 방을 얻었다.	↔	[A]
사다	[B]	↔	잃다
	어제 서점에 가서 책을 샀다.	↔	[C]

	[A]	[B]	[C]
①	빼다	마을 사람들에게 인심을 샀다.	팔다
②	빼다	선생님께서는 내 재능을 높이 샀다.	팔다
③	빼다	내 동생은 공연한 말로 원한을 샀다.	잃다
④	잃다	그는 마늘을 팔아서 돈을 샀다.	주다
⑤	잃다	나는 이번 공사를 위해 일꾼을 샀다.	주다

12. 일상생활에서 잘못 쓰인 표현을 조사하여 바로 잡아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잘못 쓰인 표현]		[바로잡기]
• 건물 입구 안내문에서 '어서 오십시오.'	⇒	㉠ '어서 오십시요.'
• 생활 정보 신문에서 '빈방 있슴'	⇒	㉡ '빈방 있음'
• 분식집에서 '떡볶기 1,000원'	⇒	㉢ '떡볶이 1,000원'
• 중국집에서 '자장면 곱배기'	⇒	㉣ '자장면 곱빼기'
• 한의원에서 '약 다려 드립니다.'	⇒	㉤ '약 달여 드립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회원가입/로그인 필요 없는 학습자료 제공 무료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

산꿩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 철에 울건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머언 **항구로 떠도는 구름.**

오늘도 뫼 끝에 홀로 오르니
흰 점 꽃이 인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높푸르구나.

- 정지용, 「고향」 -

(나) 어제 우리가 함께 사랑하던 자리에
오늘 가을비가 내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동안
함께 서서 바라보던 ㉠숲에
잎들이 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사랑하고
오늘 낙엽지는 자리에 남아 그리워하다
내일 이 자리를 뜨고 나면
바람만이 불겠지요

바람이 부는 동안
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헤어져 그리워하며
한세상을 살다가 가겠지요

어제 우리가 함께 사랑하던 자리에
피었던 꽃들이 오늘 이울고 있습니다.

- 도종환, 「가을비」 -

(다) 비단 장막으로 찬 기운 스며들고 새벽은 멀었지만
텅 빈 뜨락에 이슬 내려 **구슬 병풍은 더욱 차갑다.**
못 위의 연꽃은 시들어도 밤까지 향기 여전하고
우물가의 **오동잎은 떨어져** 그림자 없는 가을.
물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서풍 타고 울리는데
발(簾) 밖에는 서리 내려 밤벌레만 시끄럽구나.
베틀에 감긴 옷감 가위로 잘라낸 뒤
옥관* 임의 꿈을 깨니 ㉡비단 장막은 허전하다.
먼 길 나그네에게 부치려고 **임의 옷을 재단하니**
쓸쓸한 등불이 어두운 벽을 밝힐 뿐.
울음을 삼키며 **편지 한 장 써놓았는데**
역사* 내일 아침 남쪽 동네로 전해준다네.
옷과 편지 봉하고 뜨락에 나서니
반짝이는 은하수에 **새벽별만 밝네.**
차디찬 금침에서 뒤척이며 잠 못 이룰 때
지는 달이 정답게 내 방을 엿보네.

紗幬寒逼殘宵永　露下虛庭玉屛冷
池荷粉褪夜有香　井梧葉下秋無影
丁東玉漏響西風　簾外霜多啼夕蟲
金刀剪下機中素　玉關夢斷羅帷空
裁作衣裳寄遠客　悄悄蘭燈明暗壁
含啼寫得一封書　驛使明朝發南陌
裁封已就步中庭　耿耿銀河明曉星
寒衾轉輾不成寐　落月多情窺畵屛

- 허난설헌, 「사시사(四時詞)」 -

* 옥관: 옥문관(국경을 지키러 간 남편이 있는 공간)
* 역사: 편지를 전하는 사람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② 명암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③ 공간 이동에 따른 화자의 정서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④ 시상의 반전을 통해 화자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⑤ 과거 회상을 통해 화자의 삶을 반성적으로 돌아보고 있다.

14. <보기>를 참조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시에서 화자가 추구하는 '고향'은 현실에서의 아픔과 슬픔을 정화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꿈을 담은 정신적 안식처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자가 찾은 현실적인 고향은 자연은 그대로이지만, 정신적인 안식을 주지 못하는 공간이다. 이 시는 정신적인 고향과 현실적 고향 사이의 괴리로 인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이다.

① '고향'은 화자가 현실에서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찾은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군.
② '뻐꾸기 제 철에 울건만'에는 변함없는 자연의 모습이 나타나 있군.
③ '항구로 떠도는 구름'은 자신이 추구하는 고향을 찾지 못한 화자의 정신적 방황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겠군.
④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심리적 거리로 인한 상실감을 표현한 것이겠군.
⑤ '그리던 하늘만이 높푸르구나'에는 잃어버렸던 유년의 꿈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드러나 있군.

1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은 자책감을 느끼는 공간이다.
② ㉡은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는 공간이다.
③ ㉠은 ㉡과 달리, 현실 도피의 공간이다.
④ ㉡은 ㉠과 달리, 충족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⑤ ㉠과 ㉡은 모두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는 공간이다.

회원가입/로그인 필요 없는 학습자료 제공 무료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16. <보기>를 참조하여 (나)를 영상물로 제작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시를 영상물로 제작할 때에는 작품에 대해 감상한 바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시적 화자를 구체적인 인물로 설정하고, 시를 둘러싼 분위기와 여백을 구체적인 영상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중심 요소가 부차적인 것으로 물러앉을 수 있으며, 새로운 의미가 첨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 제작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① 단풍이 든 숲에 빗방울 소리를 음향 효과로 넣어 계절적 분위기를 드러내자.
⇓
② 숲이 보이는 곳을 배경으로 사랑하던 사람과의 추억을 떠올리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어.
⇓
③ 주인공이 혼자 바라보는 낙엽에 임의 모습을 오버랩해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것이 좋겠어.
⇓
④ 남녀가 머물렀던 숲에 찾아오는 다른 연인들의 다정한 모습을 대비시켜 주인공의 절망감을 강조하자.
⇓
⑤ 피었던 꽃이 시드는 장면을 클로즈업하여, 만남과 헤어짐이 삶의 보편적 모습임을 암시하는 것이 좋겠어.

17.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① 처음과 끝을 대응시켜 형태적 안정감을 준다.
② 문장의 어순을 바꾸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③ 영탄적 표현으로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④ 대구적 표현을 반복하여 정형적 운율미를 드러낸다.
⑤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낸다.

18.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구슬 병풍은 더욱 차갑다'라는 표현에는 화자의 외로운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
② '오동잎은 떨어져'라는 표현은 하강의 이미지로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③ '임의 옷을 재단하니'와 '편지 한 장 써놓았는데'라는 표현에는 임을 걱정하고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④ '반짝이는 은하수'와 '새벽별만 밝네'라는 표현에는 임과 지내던 시절을 회상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⑤ '지는 달이 정답게 내 방을 엿보네'라는 표현에서, '지는 달'은 잠 못 이루는 화자에게 위안이 되고 있다.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의궤는 의식(儀式)과 궤범(軌範)을 합한 말로 '의식의 모범이 되는 책'이라는 뜻이다. 조선은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도감(都監)'이라는 임시 기구를 설치하였는데, 행사를 주관한 도감이 행사의 전말을 기록한 보고서가 '의궤(儀軌)'이다. 조선은 국가의 주요 행사가 있으면 선왕 때의 사례를 참고하여 거행하는 것이 관례였으므로, 국가 행사에 관계되는 기록을 의궤로 정리해 둠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고 했다.

의궤는 조선 초부터 제작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남아 있는 의궤는 모두 17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 이전의 것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사이에 일어난 왜란과 호란의 와중에 ㉠소실(消失)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마지막에 나온 의궤는 1929년 순종황제와 순명황후의 삼년상을 치른 후 신주를 종묘에 모시는 과정을 기록한 『순종효황제순명효황후부묘주감의궤(純宗孝皇帝純明孝皇后祔廟主監儀軌)』이다. 왕조의 ㉡쇠망(衰亡)과 함께 의궤의 기록도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의궤에는 행사의 과정을 날짜에 따라 기록한 전교(傳敎: 국왕의 지시 사항)와 계사(啓辭: 국왕이 지시한 사항과 신하들이 건의한 사항을 날짜별로 모은 것) 등 각종 공문서를 비롯하여 담당자의 명단과 신상 자료, 소요된 물품, 경비의 지출, 유공자 포상 등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행사 참여 인원, 의장기의 모습, 가마의 배치 등 당시의 현장을 그림으로 표현한 반차도*나, 사용 물품의 도설(圖說: 그림 설명) 등을 실어 당시 행사의 구체적 절차나 모습을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드러냈다. 이와 같은 의궤의 철저한 기록은 막강한 왕권중심체제에서 국왕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을 방지할 수 있는 견제책이자 정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법이었다.

의궤에는 행사에 참여한 관리와 장인들의 실명(實名)을 기록한 것이 눈에 띈다. 양민의 이름만이 아니라 김노미(金老味), 김돌쇠(金乭金) 등 이름만으로도 천인임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도 많이 보인다. 여기에는 작업자의 책임 ㉢소재(所在)를 밝히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남다른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작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려는 뜻도 담겨 있었던 것이다.

의궤의 기록은 역사 연구자들에게 다양하고 상세한 ㉣사료(史料)를 제공하고 있다. 반차도에 나타나는 인물의 복식, 잔칫상에 오르는 음식의 종류와 재료, 행사에 연주된 악장과 악기의 편성, 악기 그림 등은 그 분야의 연구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의궤의 기록을 통해 조선시대 관청들의 소속과 소관 업무를 알 수 있고, 의궤에 수록된 물품명에는 바지[把持], 저고리[赤古里], 요강[要江], 걸레[擧乃], 곡괭이[串光屎] 등 고유어가 한자로 표기되어 있어 국어학 연구에도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조선은 의궤를 편찬하여 국왕 및 관련기관에 보고한 다음에야 각종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국왕의 국정 수행에서 경비가 많이 ㉤소요(所要)되는 국가 행사의 내역 일체를 빠짐없이 기록하여 공개한 의궤는 철저했던 조선시대 기록 정신의 단면을 유감없이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반차도: 궁중의 행사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 궁중 행사의 의식과 늘어선 관원들의 배치 상황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다.

회원가입/로그인 필요 없는 학습자료 제공 무료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19. 위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1점]

① 의궤의 개념 ② 의궤의 변모 과정
③ 의궤의 수록 내용 ④ 의궤의 제작 목적
⑤ 의궤의 편찬 시기

20. 위 글을 읽고 <보기>의 밑줄 친 것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는 1759년 6월에 있었던 영조와 정순왕후 김 씨(김한구의 딸)의 혼례 과정을 기록한 의궤이다. 왕비 후보를 뽑는 삼간택의 과정을 비롯하여 납채(納采: 청혼서 보내기), 납징(納徵: 혼인 예물 보내기), 고기(告期: 날짜 잡기), 책비(冊妃: 왕비의 책봉), 친영(親迎: 별궁으로 가 왕비 맞이하기), 동뢰연(同牢宴: 혼인 후의 궁중 잔치) 등 왕실 혼례의 구체적인 절차들이 나타나 있다.

① 혼례와 관련된 각종 공문서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② 혼례에 참여한 인원은 반차도를 통해 알 수 있을 거야.
③ 왕비 간택의 담당자 및 담당 업무도 기록되어 있을 거야.
④ 왕실의 간섭을 막기 위해 영조에게는 보고하지 않았을 거야.
⑤ 왕실의 복잡한 혼례 절차가 그림으로 생생하게 설명되어 있을 거야.

21.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의궤'의 의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사 일체를 철저하게 기록함으로써 정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다.
② 궁중 행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조선시대 궁중생활사 연구에 도움이 되고 있다.
③ 편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왕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을 견제하였다.
④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실명을 기록함으로써 참여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게 하였다.
⑤ 국가 행사의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후대 왕들로 하여금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22. ㉠~㉤의 사전적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 사라져 없어짐
② ㉡: 쇠퇴하여 망함
③ ㉢: 어떤 것을 만드는 데 바탕이 되는 재료
④ ㉣: 역사 연구에 필요한 문헌이나 유물 따위
⑤ ㉤: 필요로 하거나 요구되는 바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상에 덧없는 것은 세월이요, 무정한 것은 가난이었다. 심청이 나이가 십일 세에 ⓐ집안 형편이 가련하고 노부(老父)가 궁병(窮病)하니 어리고 약한 몸이 무엇을 의지하여 살까. 하루는 심청이 부친 앞에 여쭙기를,

"아버님 들으시옵소서. 말 못 하는 ㉠까마귀도 쓸쓸한 숲 저문 날에 효도할 줄을 알고, 곽거(郭巨)라 하는 사람은 부모 전 효도하여 반찬 공경 극진히 할 때 세 살 된 어린 아이가 부모 반찬을 먹으므로 산 자식을 묻자고 양주가 의논하였고, 맹종(孟宗)은 효도하여 엄동 설한에 죽순을 얻어 부모를 봉양하였나이다. 소녀도 나이가 십여 세라, 옛 효자만 못할망정 맛난 음식으로 아버님을 공양 못하겠나이까. 아버지의 어두우신 눈으로 험로한 길을 다니시다가 넘어져 상하기 쉽고, 비바람을 무릅쓰고 다니시면 병환이 날까 염려가 되니, 아버지는 오늘부터 집 안에 계시옵소서. 소녀가 혼자 밥을 빌어 조석으로 근심을 덜겠나이다."

심 봉사가 크게 웃으며,

"네 말이 효녀로다. 인정은 그렇지만 어린 너를 내보내고 앉아서 받아 먹는 내가 어찌 마음 편하겠느냐. 그런 말을 다시는 하지 마라."

"아버지 그런 말 마시옵소서. 자로는 현인으로 백 리 길을 쌀을 날라 봉양하였고, 옛날 제영은 장안성에 갇힌 아비를 위해 몸을 팔아 속죄하였습니다. 그런 일을 생각하면 사람은 다 일반인데, 이만 일을 못 하겠나이까. 너무 말리지 마시옵소서."

심 봉사가 옳게 여겨 허락하는데,

"효녀로다, 내 딸이여! 네 말이 기특하니 ⓑ아무렇게나 하려무나."

심청이 그날부터 밥을 빌러 나설 적에, 먼 산에 해 비치고 앞마을 연기 나는데, 가련하다, 심청이 베 중의(中衣) 옷에 대님 매고, 깃만 남은 헌 저고리, 자락 없는 청목 휘양을 볼상 없이 숙여 쓰고, 뒤축 없는 헌신짝에 버선 없이 발을 벗고, 헌 바가지를 손에 들고 건넛마을을 바라보았다.

천산(千山) 조비(鳥飛) 끊어지고, 만경(萬頃)에 인적이 전혀 없다. 북풍으로 모진 바람이 살 쏘듯이 불어온다. 황혼에 가는 거동은, 눈 뿌리는 수풀 속을 외로이 날아가는 어미 잃은 ㉡까마귀였다. 옆걸음쳐 손을 불고 옹그리며 건너갔다.

건넛마을 당도하여 이집 저집 부엌문만 들어서며 가련히 비는 말이,

"모친이 돌아가신 후에 눈 멀으신 우리 부친 공양할 길이 없어 왔사오니, 댁에서 잡수시는 대로 밥 한 술만 주옵소서."

보고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감동하여 ⓒ그릇밥, 김치, 장을 아끼지 않고 덜어 주며,

"아가, 어서 몸을 녹이고 많이 먹고 가거라."

하는 말은 가련한 정에 감동되어 고마운 마음으로 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심청이는,

"추운 방에서 늙은 부친이 나 오기만 기다리시니 나 혼자 먹을 수 있나이까?"

하는 것은 또한 부친을 생각하는 지성에서 나오는 말이었다.

이렇게 얻은 밥이 두세 그릇이 충분히 되었다. 심청이는 급한 마음에 돌아와서 사립문 밖에 이르러,

"아버지, 춥지 않으신지요. 몹시 시장하시지요. 여러 집을

회원가입/로그인 필요 없는 학습자료 제공 무료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다니자니 자연 늦어졌나이다."

ⓓ심 봉사는 딸을 보내 놓고 마음 놓지 못하다가 딸 소리를 반겨 듣고 문을 활짝 열어 놓으며,

"애고 내 딸, 너 오느냐?"

두 손을 덥석 잡고,

"손 시리지 않느냐? 화로에 불 쬐어라."

한다. 자식 아끼는 부모 마음같이 간절한 것은 없는 터이라 심 봉사 기가 막혀 훌쩍 눈물지으며,

"애닯구나 내 팔자야. 앞 못 보고 구차하여 쓰지 못할 이 목숨이 살면 무엇하자고 자식 고생시키느냐."

심청이의 장한 효성이 부친을 위로하여,

"아버지, 서러워 마사이다. 부모께 봉양하고 자식의 효 받는 것이 이 천지에 떳떳하고 사리에 당연하니 너무 심화(心火) 마옵소서."

ⓔ이렇게 봉양할 제, 춘하추동 사시절을 쉴 날 없이 밥을 빌고, 나이 점점 자랄수록 바느질과 길쌈질로 삯을 받아 부친 공경을 한결같이 하였다.

- 작자 미상, 「심청전」 -

2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ㄴ. 인물을 희화화하여 현실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ㄷ.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생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ㄹ. 전기적 요소를 활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4. ㉠과 ㉡을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① ㉠과 ㉡ 모두 인물이 원망하는 대상이다.
② ㉠과 ㉡ 모두 인물의 부정적 미래를 암시하는 대상이다.
③ ㉠은 인물이 의지하는 대상이고, ㉡은 인물이 거부하는 대상이다.
④ ㉠은 인물이 연민하는 대상이고, ㉡은 인물이 동경하는 대상이다.
⑤ ㉠은 인물이 본받고자 하는 대상이고, ㉡은 인물의 모습을 비유한 대상이다.

25. <보기>의 관점에서 위 글을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문학 감상은 독자가 작품 해석의 주체로서 작품의 내용을 일상의 삶과 연결 지어 읽으며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그런 점에서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은 우리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 주는 자양분이 된다.

① 어린 심청이 어려운 고사를 인용하는 것이 당시에 가능했을지 의문이 생겼어요.
② 율문체로 된 부분을 읽으며 현대소설에서 느끼지 못했던 리듬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③ 인물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을 통해 당시 사람들이 입었던 의복의 형태를 짐작할 수 있었어요.
④ 부모 봉양을 자식의 당연한 도리로 생각하는 심청의 말에서 당시 사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었어요.
⑤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심청의 모습을 보며 평소 쉽게 포기하는 나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26. ⓐ~ⓔ에 대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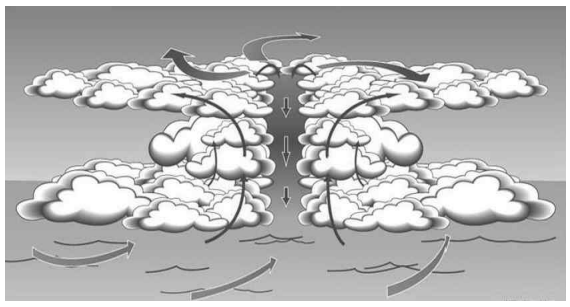
① ⓐ: 심청이 처한 상황은 설상가상(雪上加霜)이군.
② ⓑ: 심 봉사는 심청의 행동에 수수방관(袖手傍觀)하고 있군.
③ ⓒ: 마을 사람들은 심청을 보고 측은지심(惻隱之心)을 느꼈겠군.
④ ⓓ: 심 봉사는 심청을 기다리며 노심초사(勞心焦思)했겠군.
⑤ ⓔ: 심청의 행동에서 반포지효(反哺之孝)의 마음을 느낄 수 있군.

회원가입/로그인 필요 없는 학습자료 제공 무료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저기압의 특징은 공기가 상승한다는 것이다. 저기압은 크게 온대 저기압과 열대 저기압으로 분류되는데, 온대 저기압은 중위도 지방에서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밀어 상승시켜 발생하고, 열대 저기압은 저위도 지방에서 고온의 공기가 밀도가 작아 상승하여 발생한다. 특히 열대 저기압 중 중심 풍속이 17m/s를 넘으면 태풍이라고 하는데 지역에 따라 부르는 이름은 다양하다.

흔히 '태풍의 눈'이라고 불리는 태풍의 중심에서는 하강 기류가 형성되어 구름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태풍의 중심 부근에서는 공기가 상승하고 강한 바람이 불며, 태풍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기압이 높아지고 바람의 세기도 약해진다. 그리고 태풍은 그 주변부에서 태풍의 눈을 향해,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남반구에서는 시계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 와 상승한다. 또한 태풍 중심부근에는 공기의 상승으로 인한 구름이 만들어져 많은 비가 오게 된다.



<태풍의 모식도>

태풍은 주변으로부터 뜨거운 수증기를 빨아들이며 성장하는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뜨거운 바다가 늘어나 태풍의 위력도 커지게 되었다. 태풍은 주로 공기의 온도가 높고 수증기가 많은 적도 부근에서 발생한다. 단, 적도에서는 지구 자전 효과가 적어 소용돌이가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위도 5~25도의 바다에서 발생한다.

대부분의 태풍은 북반구의 중위도 지방에 이르게 되면 남서풍인 편서풍을 따라 올라온다. 이 때 태풍 진행방향의 오른쪽은 태풍의 바람 방향과 편서풍의 바람방향이 같아서 더욱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위험반원이라고 한다. 반대로 태풍 진행방향의 왼쪽은 편서풍의 바람 방향이 태풍의 바람 방향과 반대가 되어서 바람이 약하게 불기 때문에 가항반원이라고 한다. 특히, 위험반원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고 폭우가 내려 가옥의 파손이나 침수가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태풍이 미운 짓만 하는 것은 아니다. 1988년과 2001년은 태풍이 우리나라를 비켜가 '태풍 없는 해'로 기록되었지만 적조가 유난히 극성을 부린 해이기도 했다. 또한 태풍은 강한 바람으로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오염물질을 멀리 날려 버리는 역할도 해 준다. 올해도 우리는 ㉠두 얼굴을 가진 태풍을 만나게 될 것이다.

27. 위 글의 서술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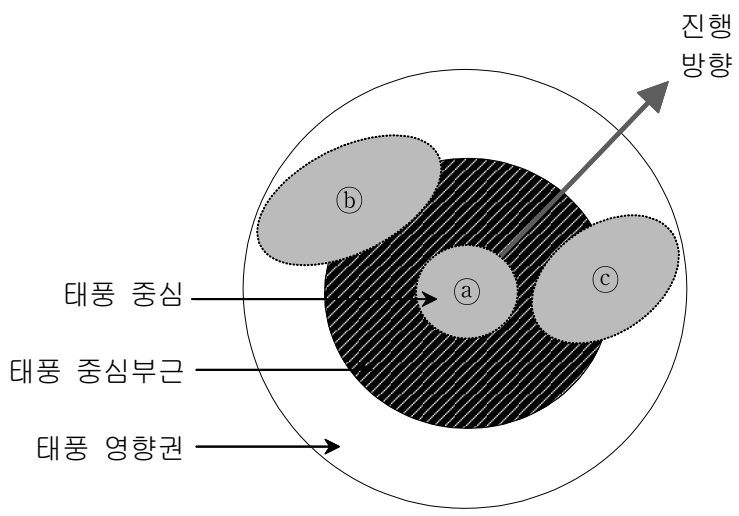
① 친숙한 상황을 들어 어려운 개념을 쉽게 설명한다.
② 다양한 이론으로 대상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③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④ 대상의 발생 원인과 특성을 밝혀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⑤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대상의 변화양상을 제시하고 있다.

28. 위 글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한 것은?

① 태풍은 바다보다 육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② 태풍은 편서풍을 만나 바람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③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 태풍의 위력은 더욱 커진다.
④ 태풍은 공기의 밀도가 높은 적도 근처에서 만들어진다.
⑤ 온대 저기압의 중심 풍속이 17m/s를 넘으면 태풍으로 변한다.

29.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태풍은 북반구의 중위도에 위치한 바다에서 이동 중이다.

① ⓐ 근처로 바람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② ⓐ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
③ ⓑ에서는 하강기류와 상승기류가 만난다.
④ ⓐ보다 ⓑ에서 기압이 높다.
⑤ ⓑ보다 ⓒ에서 바람이 세게 분다.

30. ㉠과 유사한 사례가 아닌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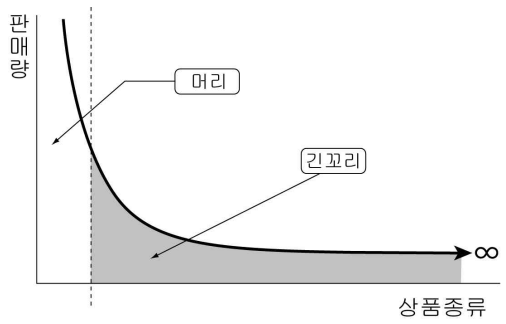
① 가옥의 파손 및 침수를 일으키는 장맛비는, 공기 중의 미세먼지를 씻어준다.
② 지열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화산활동은,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따뜻한 물을 제공해 준다.
③ 농작물이 잘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강의 홍수는, 삼각주에 토사를 쌓아 농지를 비옥하게 한다.
④ 인간에게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봄철 황사는, 알칼리성의 흙을 이동시켜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한다.
⑤ 선박을 난파시키기도 하는 큰 파도는,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어 어류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

회원가입/로그인 필요 없는 학습자료 제공 무료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파레토 법칙'은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매출의 80퍼센트는 20퍼센트의 핵심고객이나 히트상품에 의해 발생하고, 총생산량의 80퍼센트는 20퍼센트의 핵심사원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이 이 법칙의 요지이다. 이처럼 전체 생산과 매출에서 상위 20퍼센트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보니, 시장에서는 이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성공의 관건이 되어 왔다.

(나) 그런데 최근 등장한 ㉠'긴 꼬리(The Long Tail) 경제'의 관심은 '머리'가 아닌 80퍼센트의 '꼬리'에 있다. '꼬리'가 점점 길어지면서 영향력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 그림과 같이 가로축의 좌측에서부터 상품을 잘 팔리는 순서대로 나열하고 세로축에 각각의 판매량을 표시하여 선으로 연결하면 우하향 곡선이 그려진다. 이때 급경사를 이루며 좌측으로 불쑥 솟아오른 부분이 '머리'에 해당하고, 길고 완만하게 이어지는 부분이 '긴 꼬리'이다. 곡선과 가로축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꼬리가 길수록 증가한다. 따라서 구비한 상품의 종류가 많을수록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꼬리가 길어지면 어떤 한 가지 상품의 매출은 적더라도 적게 팔리는 상품들의 매출액을 다 합한 것이 히트상품의 매출액과 맞먹거나 오히려 능가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다) 인터넷의 발전과 온라인 시장의 형성은 '긴 꼬리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 바 크다.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시장의 공간은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었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 거래로 유통비용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그동안 외면당하던 80퍼센트의 틈새상품이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공급자와 판매자는 몇 안 되는 히트상품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졌다.

(라) 게다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소비 행동 역시 '긴 꼬리 경제'의 활성화를 부추기고 있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다른 소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상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이들은 원하는 상품의 정보 검색에서 구매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이며 주체적이다. 별 볼 일 없던 제품이 이들에 의해 하루아침에 효자 상품이 되기도 한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온라인 시장에서는 개개인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따라서 온라인 시장에서는 기존의 오프라인 시장과 달리 '불특정 소비자'들의 소비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

(마)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맞아 무한한 선택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시장에서는 비주류 고객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떠오른 '긴 꼬리 경제'가 기존의 생산이나 판매 개념을 싹 바꿔 놓을 것이라는 견해도 일고 있다. 긴 꼬리를 형성하는 소수 비주류 고객들의 다양한 욕구에 주목한 소량다품종의 생산과 판매가 확대되고, 가격 또한 파격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31. <보기>를 넣어 위 글을 보강하고자 할 때, 그 활용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소비사회로 진입하면서 새로운 소비 집단이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양한 경로로 제품의 개발 및 디자인, 판매 등에 적극 개입하는 '크리슈머'가 등장했다. 또한 '트레저 헌터'의 경우 가격 비교 사이트나 사용 후기 등을 참조해 상품을 꼼꼼히 비교 분석한 후 매우 신중하게 소비를 결정한다.

① (가)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이 성공의 관건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한다.
② (나)에서 최근 확산되고 있는 '긴 꼬리 경제'의 한계를 지적하는 사례로 제시한다.
③ (다)에서 생산자가 히트상품에 집착하게 되는 이유로 활용한다.
④ (라)에서 온라인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 형태를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로 활용한다.
⑤ (마)에서 비주류 고객의 위상이 높아지는 현실과 대조적인 소비 현상으로 제시한다.

32. ㉠의 구체적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 백화점은 우수고객들에게 '할인쿠폰 모음'을 발송해 높은 수익을 거두었다.
② B 영화사는 톱스타를 주연으로 내세운 영화를 제작해 높은 관객 동원율을 기록했다.
③ C 온라인 서점은 각종 희귀서적 및 전문서적을 꾸준히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④ D 기획사에 소속된 인기가수가 가요 프로그램 순위에서는 물론 음원 판매 수익률 면에서도 절대 우위를 보이고 있다.
⑤ E 제약회사의 비타민 제품은 회사의 수익률을 올리는 데 기여한 효자 상품으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33. 위 글을 읽고 시장에 대해 전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전략이 다양해질 것이다.
② 주류 소비자들의 관심이 틈새상품으로 집중될 것이다.
③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소비자들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④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될 것이다.
⑤ 다양한 소비층의 요구에 부응하는 상품들이 공급될 것이다.

회원가입/로그인 필요 없는 학습자료 제공 무료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러나 그녀는 한사코 돈을 받지 않았다. 남편이 나서서 간청을 하다시피 해서 ㉠겨우 국밥집에서 점심 요기를 시킬 수 있었을 뿐이었다. 그동안 어렵게 얻어들은 그간의 사정은 만수가 공장에 다니다 뭘 잘못했는지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고 늦게 장가든 그의 처는 아들을 둘 데리고 옥바라지하기가 지겨웠는지 도망을 가버렸다고 했다. 만수네 혼자서 아들 옥바라지하랴 손자 둘 기르랴 고생이 말이 아닌 모양이었다. 옆에서 대강의 사정을 듣고 난 남편은 또 한번 돈을 주고 싶어 애걸을 했지만 만수네는 터무니없이 당당한 얼굴로 어디서 받아온 물건도 아니고, 힘만 좀 들여 거저로 캔 물건을 딴사람도 아닌 친정붙이에게 돈 받고 팔 만큼 돈독이 오르진 않았노라고 했다. 우리를 만수네가 친정붙이 취급하는 데는 나도 가슴이 좀 찐했지만 마음이 여린 남편은 감격까지 한 모양이었다. 손자들 데리고 서울에 한번 다녀가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었다. 내가 지금 남편에게 비아냥거리는 것은 그 일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약이 된다는 십 년 묵은 더덕 말고도 그때 우리가 거저로 얻은 산나물 말린 것은 여관으로 돌아와 일행에게 골고루 나누어줄 수 있을 만큼 푸짐한 것이었다. 나중에도 심심찮게 인사를 받을 만큼 그 나물들은 연하고 맛좋은 것이기도 했다. 아무리 고지식한 남편이지만 정말 만수네가 손자를 데리고 놀러올 줄은 몰랐던 듯 서울에 오자마자 만수네한테 돈을 좀 부쳐주자고 졸라 나는 그대로 했고, 그것으로 우리와 만수네 사이는 더 이상 주고받을 게 없는 개운한 사이가 되었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엊그저께 느닷없이 손자들을 데리고 들이닥친 거였다.

"들어갑시다. 느이들 배고프쟈?"

남편이 아이들을 양손에 하나씩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진지 잡수시래요, 하면서 아이들이 매달린 건 내가 아니라 남편 쪽이었다. 나는 속으로 흥, 꼴 좋구랴, 소리를 또 한번 되풀이하면서 남편 뒤를 따랐다.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나고 식탁 위엔 아침상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내가 부엌 수도에서 대강 손을 씻는 동안 아이들은 또 저희 할머니 치맛자락을 양쪽에서 쥐어짜며 뭐라고 칭얼댔다.

"㉡만수네, 불쌍하다고 저애들을 너무 오냐오냐 하는 거 아뉴. 야단칠 때는 딱 부러지게 야단을 쳐요. 에미 애비가 같이 사는 집에서도 할머니가 있으면 아이들 버릇 버려놓는다고 말이 많은 세상이라우. 쟤들도 생전 만수네가 기를 것도 아니고 언제고 에미 애비가 돌아와봐요, 그동안 길러준 공은 생각도 안 하고 버르장머리 버려놨다고 탓이나 실컷 듣게 생겼구먼."

나는 내친김에 ㉢이탈리아제 안경테 얘기까지 하려고 아이들을 한번 곱지 않게 노려보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데 만수네가 불쑥 뚱딴지 같은 소리를 했다.

"약속을 안 지킨다고 날 이렇게 주리를 트는 걸 워째. 제풀에 지칠 테니까 내비둬."

㉣"약속은 무슨 약속?"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쳐들며 입을 참새새끼처럼 함빡 벌렸다. '어린이대공원' 소리는 만수네의 넓적한 손바닥에 틀어막혀 미처 끝을 맺지 못했다. 못 알아들은 체 주책이야, 한마디 해주고 나서 식탁에 앉았다. 식탁의자가 도합 넷밖에 없는 걸 핑계로 만수네는 아이들과 함께 따로 먹으려 했고, 그럴 때마다 남편은 한 아이를 무릎에 앉히면서까지 한상에서 먹자고 법석을 떨더니만 ㉤오늘따라 묵묵히 숟갈질만 했다. 이런 남편의 태도가 나도 편치 않았으니 만수네라고 눈치가 없었을 리 없었다. 아침상을 치우자마자 보따리를 챙겨가지고 나왔다. 나도 남편도 그들을 붙드는 시늉도 안 했다. 그런 인사치레로 다시 한번 속을 들여다보이기도 싫었고 무엇보다 몹시 피곤했다. 나는 큰아이 호주머니에다 준비한 노자돈 봉투를 찔러주면서 할머니 승낙받아 너 하고 싶은 걸 하라고 말했다. 대공원에 가고 싶으면 다시 한번 졸라보렴, 하는 꼬드김도 내포되어 있었다. 이탈리아제 안경테 얘기를 할 기회를 놓치긴 했지만 그 말 할 새 없이 떠난 건 얼마나 잘된 일인지 몰랐다. 내가 모아준 커다란 옷보따리를 이고 양쪽에서 치맛자락을 쥐어짜는 아이들에게 지척지척 이끌려가는 만수네가 골목어귀를 돌자 나는 날아갈 듯 가벼운 걸음으로 집으로 뛰어들어왔다. 만수네가 쓰던 현관에서 빤히 보이는 작은 방은 열린 채였다. 나이 먹더니 뒤끝도 흐려졌는지 만수네가 떠난 자리는 깔끔하지가 않았다. 나는 빗자루를 들고 들어가 방바닥에 흩어진 종이쪽지를 쓸어모았다. 갈기갈기 찢어버린 건 내 필적이 아닌가. 나는 그것들을 펴서 맞춰보다 말고 예리한 사금파리에 찔린 듯이 놀라서 그것을 떨구었다. 그것을 떨구었건만도 찔림은 여전했다. 지금 내가 함부로 찔리고 있는 건 손바닥이 아니어서 피할 수가 없었다. 실용에서 제외된 장식용 도자기를 산산이 부수면서 수치스러워하던 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편지는 수안보 근처에서 만수네를 만나고 와서 돈을 부칠 때 동봉한 편지였다. 남편 성화에 못 이겨 돈을 부치러 가긴 했지만 막상 소액환만 달랑 부치려니 너무 박절한 듯하여 우체국 창구에서 수첩을 뜯어서 쓴 편지였다. 얻어온 나물에 비해 부치는 금액은 많이 넉넉하였으므로 나만큼 너그럽고 인정 많은 사람도 흔치 않을 거라는 자기 황홀이 즉흥적으로 장황한 미사여구를 늘어놓게 했다. 그녀의 고생에 대한 간절한 위로와 함께 언제고 힘이 돼줄 테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의논해주기 바란다는 부탁까지 하고 나니 나는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좋아졌다. 그래서 봄에 아이들을 데리고 상경하면 푹 쉬면서 회포도 풀 수 있고 아이들을 데리고 도시락 싸가지고 어린이대공원에 놀러도 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아무리 바빠도 그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 그런 기회를 꼭 만들도록 하기 바란다, 기다리고 있겠다, 하는 데까지 편지 사연이 발전하고 말았다. 그리고는 곧 잊어버렸던 편지 사연이 지금 예리한 사금파리가 되어 내 마음에 사정없이 꽂히고 있었다.

방안을 어지럽힌 건 내 편지가 다였다. 그 밖엔 머리카락 하나 떨군 게 없이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다.

- 박완서, 「저문 날의 삽화 3」-

3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이야기 전개 속도를 높이고 있다.
② 특정 소재를 활용하여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장면의 빈번한 전환으로 인물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④ 시대적 배경을 섬세하게 묘사하여 사회 현실을 실감나게 드러내고 있다.
⑤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에 대해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회원가입/로그인 필요 없는 학습자료 제공 무료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35. 위 글을 '나'와 '만수네'를 중심으로 <보기>와 같이 정리한다고 하였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나'는 '만수네'를 우연히 만나 나물을 받음
⇓
㉯: '나'는 '만수네'에게 돈과 편지를 보냄
⇓
㉰: '만수네'가 손자들을 데리고 '나'의 집을 찾아옴
⇓
㉱: '만수네'가 '나'의 집에 머무름
⇓
㉲: '만수네'가 '나'의 집에서 떠남

① ㉮에서 '만수네'는 '나'를 진심으로 대한다.
② ㉯에서 '나'는 자신이 한 행동에 만족스러워한다.
③ ㉰에서 '만수네'의 방문은 ㉯의 편지 때문이다.
④ ㉱에서 '나'는 '만수네'의 가족들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다.
⑤ ㉲에서 '만수네'는 ㉮에서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한다.

36. 위 글을 <보기>에 비추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은 평균적인 소시민의 삶에 내재된 이기적인 속성을 섬세하고 예리한 심리 묘사를 통해 그리고 있다. 또한 인물의 삶을 대비시키기도 하고, '나'의 심리 변화를 대비시키기도 하는 등 다양한 대비의 방식을 통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나'의 이기적인 속성은 갖은 고생을 하며 살아온 '만수네'의 가난하지만 건강한 삶과 대비되며, 이 대비를 통해 '나'의 허위성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① '만수네'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통해 대비되는 삶의 양상을 볼 수 있군.
② '만수네'가 버리고 간 편지에서 '나'의 허위성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는군.
③ '만수네'가 빨리 떠나기를 바라는 '나'의 태도에서 이기적인 마음을 읽을 수 있군.
④ '나'를 원망하지 않고 이해해주려는 '만수네'의 모습에서 건강한 삶을 발견할 수 있군.
⑤ 인물 간의 대화보다는 '나'의 심리 위주로 작품을 서술하여 소시민의 의식을 포착하고 있군.

3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 '만수네'가 힘들게 사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② ㉡: '만수네'에 대한 '나'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③ ㉢: '만수네'가 '나'의 집을 떠난 계기가 나타나 있다.
④ ㉣: '만수네'의 말을 일부러 모른척하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⑤ ㉤: '만수네'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가 변했음을 알 수 있다.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관용 표현은 구성 단어의 뜻과는 별개의 뜻을 가진 어휘 복합체로, 특이한 형식이 고정되어 하나의 단어처럼 익숙하게 된 것을 말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관용 표현에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 대응되기도 하기 때문에 문맥을 통해 그 의미를 따져야 한다. 예를 들어 '바가지를 쓰다'라는 표현은 실제로 '바가지를 머리에 얹어 덮는다'라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일 수도 있고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값을 지불하여 억울한 손해를 보다'나 '억울하게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다'라는 관용적인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어떤 표현이 실제 문장에서 쓰일 때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나타내느냐 관용적인 의미를 나타내느냐에 따라 문장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형태이지만 어떤 의미냐에 따라 같이 쓰이는 말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1) ㄱ-1. 나는 머리가 지끈거리고 구역질이 나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ㄱ-2. 나는 어디선가 풍겨오는 튀김 냄새에 구역질이 났다.
ㄴ. 그는 자신의 무능력에 구역질이 났다.

(1)의 '구역질이 나다'가 '메스꺼워서 뱃속에 든 것을 밖으로 뱉어 내다'라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주어만 있으면 뜻이 통한다. ㄱ-2와 같이 '튀김 냄새에'와 같은 말과 함께 쓰일 수도 있지만 '어디선가 풍겨오는 튀김 냄새에' 전체를 빼도 의미는 성립한다. 반면 '구역질이 나다'가 '지겹다'라는 관용적 의미로 쓰일 때는 반드시 무엇 때문에 지겨운지를 밝혀야 한다. ㄴ에서 '무능력에'가 빠지면 '구역질이 나다'라는 표현은 관용적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2) ㄱ-1. 선미가 사정없이 현태의 가슴을 때렸다.
ㄱ-2. 현태의 가슴을 선미가 사정없이 때렸다.
ㄴ-1. 다시는 신영을 만날 수 없다는 절망감이 가슴을 때렸다.
ㄴ-2. *가슴을 다시는 신영을 만날 수 없다는 절망감이 때렸다. (*는 비문법적인 문장 표시임)

한편, (2)의 '가슴을 때리다'는 (1)과 달리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쓰일 때와 직설적 의미로 쓰일 때 문장 구조의 차이는 없다. 즉 ㄱ에서는 '선미가', ㄴ에서는 '절망감이'와 같은 주어만 있으면 의미가 전달된다. 그런데 ㄴ-1과 같은 말들로 이루어지고 순서만 바꾼 ㄴ-2는 뜻이 통하지 않는다. '가슴을 때리다'가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쓰인 경우 ㄱ-2처럼 '가슴을'과 '때리다'가 떨어져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데, 관용적 의미로 쓰인 ㄴ-2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은 관용 표현으로 쓰일 때는 '가슴을 때리다' 전체가 '엄습하다'라는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처럼 관용 표현은 두 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전체로 하나의 의미를 드러내기에 문장에서 사용될 때 특정한 조건이 필요하게 된다.

회원가입/로그인 필요 없는 학습자료 제공 무료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38.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하나의 의미를 표현하기도 한다.
② 문장의 구조가 동일할 경우, 사용된 표현이 지닌 의미도 동일하다.
③ 어떤 표현이 관용 표현으로 쓰였는지의 여부는 문장 속에서 판별해야 한다.
④ 관용적 의미로 사용된 표현은 문장에서 사용될 때, 특정한 제약이 따르기도 한다.
⑤ 관용 표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형식이 언중에게 익숙한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39. 위 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에 대해 반응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입으로 활줄을 당기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딴 선수도 있었다.
ㄴ. *입으로 활줄을 당기어 흠뻑 점수를 딴 선수도 있었다.
ㄷ. 철수는 그녀에게 점수를 따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ㄹ. 이번 기회에 흠뻑 점수를 따 두면 좋겠지.

① ㄱ의 '점수를 따다'는 '어떤 일에서의 성적을 나타내는 점수를 얻다'라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군.
② ㄴ으로 볼 때, '흠뻑'이라는 부사는 일반적 의미로 사용된 '점수를 따다'와는 어울리지 않는군.
③ ㄷ에서 '그녀에게'를 삭제하면 '점수를 따다'가 어떤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를 판별하기 어려워지는군.
④ ㄷ, ㄹ의 '점수를 따다'는 '누구에게 잘 보이다'라는 관용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군.
⑤ ㄱ~ㄹ을 통해 볼 때, 관용적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수식어의 유무로군.

40. 위 글을 심화 학습하는 과정에서 <보기>의 자료를 더 찾아본 것이다. <보기>와 위 글을 통해 추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쓰인 경우〉
◦ 아기 얼굴에 코가 묻었으니 닦아 주세요.
◦ 그 아이는 항상 코가 소매에 묻어 있었다.
◦ 코 묻은 휴지를 아무 데나 버리면 어떻게 하니?

〈관용적 의미로 쓰인 경우〉
◦ 동생의 코 묻은 돈을 뺏어서 장난감을 샀다.
◦ 코 묻은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① 관용 표현은 구성 단어 및 형식이 고정되어 있다.
② 관용 표현은 문장 내에서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③ 동사의 활용에 따라 관용 표현의 의미는 다양하게 분화된다.
④ 관용 표현에 사용된 각각의 단어는 비유적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⑤ 관용 표현은 문자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에 비해 사용 환경이 더 자유롭다.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략 줄거리] 자앙과 기임은 오랜 세월 동안 창고 안에서만 살면서 이름 모를 부품이 들어 있는 상자들을 분류하고 지키는 일을 해 왔다.

자 앙: 조심해! 아무렇게나 쌓지 말구!
기 임: 알았어.
자 앙: 그 자리가 맞아! 틀리면 안 돼.
기 임: 알았다니깐!
자 앙: 목소리가 왜 그래?
기 임: 내 목소리가 어때서?
자 앙: 잔뜩 짜증이 났군.
기 임: (㉠핸들 카의 상자들을 소리나게 내려놓는다.) 새벽 여섯시 반에 트럭이 오잖아. 한참 곤히 자고 있을 때 말야. 상자들을 싣고 와서는 빵빵 경음기를 울려댄다구. 빌어먹을, 그런데 지금이 몇 시야? 새벽 선잠을 깨서부터 지금까지 우린 쉬지 않고 일만 했어!
자 앙: (㉡서류와 상자를 대조하며) 일할 때는 온 정신을 쏟아. 그럼 불평 따윈 생기지 않는다구.
기 임: 난 너처럼 굼뜨게 일하는 건 싫어. 아무렇게나 운반해서 그냥 쌓아버리면 간단히 끝날 것을, 너는 상자 하나 옮겨 놓고 서류 한 번 보고, 상자 두 개 옮겨 놓고 서류 두 번 보고……. 난 질렸다구!
자 앙: 이 서류 좀 봐. 3-1014번에서 3-1082번까지의 상자들은, 4-9124번부터 4-9300번 상자들과는 절대로 뒤섞이지 않도록 쌓아 두라는 거야. 더구나 오늘 작업은 복잡해. 5-7708번부터 5-8010번 상자들은, 이미 보관중인 2-5631번부터 2-6907번 상자들과, 6-2122번부터 7-8044번 상자들 사이에 쌓아두라고 했어.
기 임: 정말 속 터져 죽을 일이군!
자 앙: 이 서류를 보라니깐.
기 임: 난 안 봐!

<중략>

운전수: 그건 미친 짓이야! 일부러 잘못했다고 편지를 보낼 필요는 없어!
자 앙: (편지를 운전수에게 내밀며) ㉢제발 보내야 해요!
운전수: 여봐, 내가 상자들을 운반하고 다니니깐 상자 주인과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그건 큰 착각이야. 난 말이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싣고 왔다가 그냥 실어 가는 거라구. 실제로 내가 아는 건, 정거장에서 여러 트럭들이 상자를 나눠 받을 때 만나는 분배 반장 딸기코하고, 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나눠 싣고 정거장에 가서 만나는 접수 반장 외눈깔, 그 둘뿐이라구. 딸기코와 외눈깔은 내가 붙인 별명인데, 물론 진짜 이름이야 있겠지. 하지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노름꾼이라 하듯이 나도 그들을 별명으로만 불러. 어쨌든 딸기코가 상자를 분배하는 곳은 정거장의 왼쪽이고, 외눈깔이 상자를 접수하는 곳은 정거장의 오른쪽이야. 그래서 그들은 같은 정거장에서 둘 다 상자를 취급하면서도 서로 얼굴 한 번 볼 수조차 없어.
자 앙: 별명이든 이름이든 상관없어요. (편지를 억지로 운전수 손에 쥐어 준다.) 상자를 싣고 가는 곳에 내 편지를 갖다 주면서,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면 되거든요.
운전수: 내가 자네 편지를 외눈깔에게 주면, 외눈깔은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다음 사람은 또 다음 사람에게…… 계속해서 운반되는 상자들을 따라가 맨 나중엔 주

회원가입/로그인 필요 없는 학습자료 제공 무료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인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지?
자 앙: 네, 바로 그겁니다.
운전수: 그게 또 큰 착각이라구. 부속품이 든 상자들은 말야, 중간중간에서 여러 갈래로 수없이 나눠지거든.
자 앙: 부속품 상자는 결국 한 군데로 모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운전수: 물론, 모아지는 곳도 있겠지. 상자들이 한 군데에서 나와 여러 군데로 흩어지느냐, 여러 군데에서 나와 한 군데로 모아지느냐……. 그건 그럴 수도 있구,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어쨌든 중간에 있는 우리가 어떻다고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
자 앙: 그래도 상자 주인에게는 반드시 알려줘야죠. 엉뚱하게 바뀌어진 상자 하나 때문에 뭔가 잘못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운전수: 잘못 만들어진다니……. 그게 뭔데?
다 링: (멀리서 듣고 있다가 큰 소리로 외친다.) 어떤 굉장한 기계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주는 신기한 기계죠!
운전수: (다링에게 외친다.) 무슨 기계라구?
다 링: (큰 소리로) 기계가 아니라 폭탄이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여요!
운전수: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자앙에게) 어쨌든 상자 속의 부속품으로 뭘 만드는지 알 수는 없어. 만약 폭탄을 만든다면 오히려 상자가 바뀌진 것이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테니깐 잘된 일이잖아? (㉣자앙의 편지를 허공에 들고 두 조각으로 찢으며) 여봐, 자넨 너무 배짱이 약해. 이 조그만 창고 속에서 모든 걸 성실하게 잘 했다는 것이, 창고 밖에서는 매우 큰 잘못이 된다고 생각해봐. 그럼 상자 하나쯤 틀렸다고 안절부절못하진 않을 거야. (두 조각으로 찢은 편지를 자앙의 바지 양쪽 호주머니에 쑤셔 넣는다.) 무슨 일이 생겨도 창고 밖으로 알릴 필요는 없어. 그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모를 바에야 그냥 덮어두라구. 창고 속의 자네한테는, 그게 배짱 편한 거야.
자 앙: (손에 들고 있는 서류를 가리키며) ㉤그렇다면 이런 서류들은 뭡니까? 누군가 이 서류들을 보면, 상자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운전수: 서류가 완전하다고 믿는 건 바보들뿐이지! 좋은 예가 있어. 내 아내는 옛날에 죽었는데 사망 신고를 안 했거든. 그래서 구청에서 호적을 떼어 보면 지금도 서류상으로는 버젓하게 살아있는 것으로 나온다구. 자, 굼벵이 양반, 꾸물대지 말고 어서 상자들이나 옮겨!

- 이강백, 「북어대가리」 -

41.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앙은 자신의 생각을 일관되게 밀고 나간다.
② 운전수는 자앙이 쓴 편지를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③ 자앙은 운전수를 창고 밖과 연결되는 통로로 여긴다.
④ 운전수와 자앙은 서류의 가치에 대해 다르게 생각한다.
⑤ 기임은 효율적인 창고 관리를 위해 자앙의 의견에 반대한다.

42. <보기>를 참조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 작품은 등장인물을 통해 익명성에 매몰되어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상실한 채 폐쇄적 산업 사회에서 기계의 부품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를 통해 분업화되고 획일화된 현대 사회의 문제점과 그로 인해 야기된 인간 소외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① 자앙은 편지를 통해 부정적인 사회를 비판하고 극복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군.
② 창고 안에서 상자 쌓기만 반복하는 창고지기를 통해 폐쇄적인 산업 사회의 모습을 드러냈군.
③ 등장인물을 이름 대신 '자앙'과 '기임'과 같이 성으로만 명명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익명성을 드러냈군.
④ 자앙이나 운전수 모두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기계의 부품과 같다고 할 수 있군.
⑤ 상자를 분배하는 사람과 접수하는 사람이 단절된 채 일하는 모습을 통해 소외된 현대인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군.

43. ㉠~㉤에 대한 연기 지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불만이 드러날 수 있게 동작을 크게 해야 합니다.
② ㉡: 상대의 말에 크게 개의치 않고 일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③ ㉢: 간절한 어조로 연기해야 합니다.
④ ㉣: 거침없이 편지를 찢는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⑤ ㉤: 궁금한 사항에 대한 호기심을 드러내는 어조로 말해야 합니다.

회원가입/로그인 필요 없는 학습자료 제공 무료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44～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식품의 보존성을 높이는 방법 중 건조는 일반적으로 햇볕에 말리거나 열풍으로 말리는 것이다. 그런데 특이하게 식품을 얼려서 말리는 방법이 있다. 바로 '냉동 건조'로 인스턴트 커피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다.

[A] 먼저 커피액을 ⓐ뽑아낸 다음에 -40℃로 급속하게 동결시킨다. 이 때, 급속 동결된 커피 속에는 작은 얼음 알갱이가 무수히 형성된다.

다음 공정은 1차 처리로, 진공 상태의 건조한 창고 안에서 온도를 높여 가면 커피 속에 있는 얼음 알갱이는 녹아서 한꺼번에 수증기가 된다. 이는 기압이 아주 낮은 환경에서 물은 액체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체에서 직접 기체가 되는 현상을 '승화'라고 하는데, 냉동 건조는 승화를 이용한 건조법이다. 승화가 진행되면 커피 입자 속에 얼음 알갱이의 흔적으로 몇 ㎛의 극히 작은 구멍이 생긴다.

이를 다시 건조가 진행되기 쉬운 진공 상태에서 70℃ 정도로 온도를 유지하며 2차 처리하여 남은 수분을 없애면, 커피는 구멍투성이가 되고 수분의 양은 3% 정도까지 낮아진다. 이렇게 만든 인스턴트커피를 포장하면 제품 생산이 ⓑ끝난다.

식자재에 따라서 동결, 건조의 온도와 시간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냉동 건조의 공정은 대체로 위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 냉동 건조 식품은 식자재의 형태뿐만 아니라 영양과 색, 향기 등의 성분도 잘 유지된다. 대표적으로 죽, 스프, 라면류 등의 즉석 조리 식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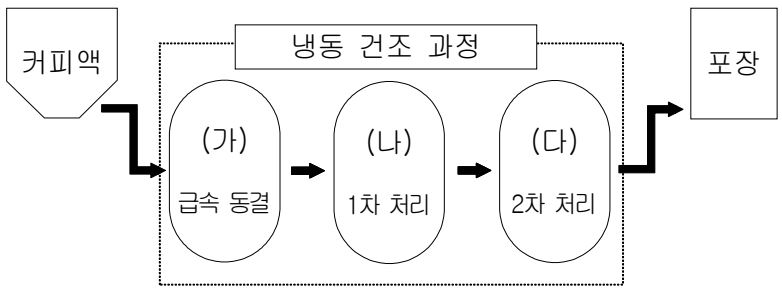
냉동 건조 방식은 여러 면에서 유익한 점이 있어 최근 즉석식품의 상품화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먼저 냉동 건조 방식을 이용하면 말려서 건조시킬 때와 같이 크기가 작아지거나 표면이 주름지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동결할 때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는 식품 속에서 액체인 물이 이동하는 것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성분 이동이나 변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열풍으로 건조시키는 방법과는 달리 열을 가해 나타나는 식품 성분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최근 많이 ⓓ쓰이고 있다.

그리고 냉동 건조 제품에는 얼음 알갱이가 없어지면서 생긴 작은 구멍이 식품 전체에 무수히 분포한다. 뜨거운 물을 부으면 이 무수한 구멍에 뜨거운 물이 들어가면서 원래 상태로 빠르게 되돌아온다. 예를 들어 인스턴트커피의 알갱이가 물에 빠르게 녹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물이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또한 식품 속의 수분이 지극히 적어서 가벼우니 휴대하기 편하며, 잘 썩지도 않는다. 이것들은 즉석식품에 매우 적합한 특성이다.

하지만 무수히 작은 구멍이 표면적을 늘리기 때문에 습기나 냄새를 잘 ⓔ빨아들이는 단점도 있다. 작은 구멍 사이로 수분과 냄새 입자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냉동 건조 식품의 포장 용기에 '습기를 주의하시고 건냉한 장소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쓰여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냉동 건조 기술은 원래 생물학의 조직 표본을 만들기 위해 생겨난 것이지만, 군용 비상식량 제조에 이용되었다가, 오늘날 ㉠대중적인 즉석식품의 제조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대량의 에너지가 사용된다는 문제점이 있어, 제조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44. 다음은 [A]의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커피액은 (가)에서 작은 얼음 알갱이를 포함한 상태가 된다.
② (가)에서 (나)로 진행하려면 온도를 높여야 한다.
③ (가)의 얼음 알갱이는 (나)에서 액체를 거쳐 기체가 된다.
④ (나)와 (다)는 진공 상태에서 공정이 이루어진다.
⑤ (다)에서 온도를 70℃ 정도로 유지하며 건조를 진행한다.

45. ㉠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벼워서 휴대가 편하기 때문에
② 습기나 냄새를 흡수하기 쉽기 때문에
③ 쉽게 부패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④ 성분의 변화 없이 식품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⑤ 수분을 공급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46. 위 글을 읽은 학생이 심화 학습을 하기 위해 설정한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냉동 건조 시 승화된 수증기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② 냉동 건조에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③ 열풍 건조 시 식품의 성분은 어떤 과정을 거쳐 변하는가?
④ 식품 성분이 유지되도록 가공하는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
⑤ 식자재를 냉동 건조 방식으로 처리할 때 형태가 유지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47. ⓐ～ⓔ를 한자어로 바꿀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① ⓐ: 추출(抽出)한
② ⓑ: 완료(完了)된다
③ ⓒ: 발생(發生)하지
④ ⓓ: 유통(流通)되고
⑤ ⓔ: 흡수(吸收)하는

회원가입/로그인 필요 없는 학습자료 제공 무료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48～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판화는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18세기까지는 예술로 인정되지 않고 포스터나 인쇄물 정도로 여겨졌다. 그러나 사진의 등장과 미디어의 발달로 판화의 예술성이 인정되기 시작했다.

판화는 제작 과정이 매우 복합적이고 역동적이다. 붓으로 그리는 회화와 달리 그리고, 파고, 찍고, 긁고, 두드리는 등의 여러 기법이 사용된다. 판화에는 목판에서의 칼 맛, 동판에서의 엠보싱(미세한 요철) 효과 등 판화만의 독특한 미감이 있다. 판화는 만들고 찍어내고 나눠 갖는 기쁨을 맛보면서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예술 장르이다. 현대 미술의 거장으로 불리는 피카소, 마티스, 앤디 워홀, 리히텐슈타인 등도 많은 판화 작품을 남겼다.

판화를 복사기에서 복사한 그림 수준으로 과소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판화는 복사한 그림과는 분명 다르다. 복사한 그림은 원본을 단순히 복제한 것이므로 작가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지만, 판화는 같은 원판에서 찍어낸 것이라도 작가의 의도에 따라 명암이나 색 등을 달리하여 표현하므로 원판에서 찍어낸 작품 모두가 정식 작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복제라는 특성 때문에 판화의 예술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었고, 그러다 보니 19세기 말경부터 작가가 직접 제작한 판화에는 에디션을 기입하기 시작했다. 에디션(edition)이란 작가가 작품을 찍어 낸 후 각각의 작품에 대한 정보를 밝히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피카소가 동판화 한 판으로 100장의 종이에 찍게 되면 1/100, 2/100, 3/100... 으로 표기하였다. 여기서 1/100은 총 100매 찍은 작품 가운데 첫 번째라는 뜻이다. 에디션은 화면의 왼쪽 아래 여백에, 서명은 오른쪽 아래에 기입하며 검은색 연필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연필이 정착도가 뛰어나며 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판화에는 아라비아 숫자 없이 A.P(Artist Proof) 또는 A/P 식의 영자가 적혀 있기도 한데, 이는 작가가 보관용으로 별도 제작한 것이다. 이 밖에도 에디션에 들어가기 전에 대여섯 장을 시험 삼아 찍어 보는 T.P(Trial Proof), 에디션을 끝내고 더 이상 찍지 않겠다는 뜻으로 판에 상처를 낸 다음에 찍는 C.P(Cancellation Proof)가 있다. 그래서 수요자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된 작품들이다.

판화는 대중적이고 개방적이어서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으며, 판화의 예술성과 독창성을 알리기 위한 전시회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판화에 대한 편견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판화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판화는 '또 하나의 원본'으로 분류되는 예술이기 때문이다.

48. 위 글의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조를 통해서 대상의 가치를 부각한다.
② 개념을 정의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③ 일상적 경험으로부터 화제를 이끌어낸다.
④ 사례를 들어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⑤ 대상에 대한 인식 제고를 강조하며 마무리한다.

49. 위 글을 읽고 발표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판화는 다양한 기법을 사용해 제작하는 거야. 따라서 판화는 제작 과정이 역동적이고 복합적이야.
② 판화는 에디션을 통해 작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그래서 현대 미술의 거장들이 선호했어.
③ 판화는 원판에서 여러 장의 작품을 찍어낸 거야. 따라서 판화는 여럿이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④ 판화는 원판에서 찍어낸 작품 하나하나가 모두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원본이 여러 개인 독특한 예술 장르야.
⑤ 판화는 엠보싱 효과와 같은 독특한 표현형식이 있어. 그래서 다른 예술과는 구별되는 미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야 해.

50. 위 글과 관련지어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박수근, <나목과 여인>

① ㉠ 대신 'T.P'라고 쓰여 있다면 시험 삼아 찍어낸 것이겠군.
② ㉠ 대신 'C.P'라고 쓰여 있다면 마지막으로 찍어낸 것이겠군.
③ ㉠의 '12/50'은 총 50매 찍은 작품 가운데 12번째라는 뜻이겠군.
④ ㉡은 원판에서 찍어 내어 작품마다 모양이 동일하겠군.
⑤ ㉡의 서명이 연필로 되어 있다면 복제를 막기 위한 의도이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회원가입/로그인 필요 없는 학습자료 제공 무료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